

이렇게 기도하라! - 3. 올바른 기도!

마태복음 6장 14-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도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올바르게 못한 기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인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지 말이죠. 내일부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범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모범이 필요한 이유를 더 절실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아는 지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해 지는 길이며, 하나님과 친밀해 질수록 사람들의 주목을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요즘 세대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6년 인도의 뭄바이에서는 '셀카 금지구역 16곳'을 지정했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250여명이 셀카를 찍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사망의 원인으로 익사, 교통사고, 추락, 총기사고, 들짐승의 공격, 감전사 등이었다고 합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사진을 찍다가 죽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영상 자료나 기사)

이런 욕구에 불을 지르는 것이 sns입니다. 누군가 나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에 나오는 것들을 보며 관심을 가지고 열광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삶의 진정한 가치는 '은밀한 가운데 일어나는 일' 즉 누구도 알지 못하는 깊은 관계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거나 구제할 때,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신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유일한 증인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둡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을 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열광과 찬사 그리고 관심도 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 중요한 것은 누군가 우리의 게시물을 보고 ‘좋아요’를 달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일들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고, 이제는 온라인 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조회수’를 기록하느냐가 세상의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진정성’보다는 ‘상품성’이 더 중요해 지고,

‘진실한 관계’ 보다는 ‘더 많은 관심’에 치중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바꾸는 일 보다는, 눈을 움직여서 감정을 조정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훨씬 자극적인 것을 사용하고, 선정적인 문구를 통해 감정을 낚으려는 사냥꾼들이 주변이 즐비하고, 우리 또한 동일한 사냥꾼이 되거나, 미끼에 걸린 불쌍한 영혼들이 되어갑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영혼의 곤고함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변화산을 통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즉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39편 1-12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피 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하는가?

어제와 그제 말씀을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기 전에 지적하셨던 것들 말입니다.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려는 위선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이러한 지적은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올바른 기도 중에 “용서”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보려합니다.

존 스토틀는 그의 책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기도문의 말을 앵무새처럼 (이교도들이 중언부언 하는 것처럼) 반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그 말을 진지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혁명적 함축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보려고 하는 본문 마태복음 6장 14-15절은 주기도문의 사족처럼 붙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제가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주기도문의 정의(definition)를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너희가 하는 일이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너희가 자기 몫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몫을 너희 스스로 차단하는 셈이 된다.

예수님 당시의 많은 종교인들이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들추어내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의 의만을 강조하므로 죄인과 세리들과는 자신들이 다르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자기들은 선행을 많이 하고 착하니까 특별대우를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그런 의가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응답받아야 하는 이유를 대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고난이 닥칠 때 왜 그런 일이 닥치는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고 하기 보다는 내가 당하는 것이 누구와 비교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과 기도의 모습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만 국한 되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신자도 혹시라도 “제가 잘 믿었지 않습니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불신자인 저 죄인보다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믿는 자에게는 무엇인가 다른 축복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아직 제가 이 모양 이 꼴이며 대신에 저 자는 저렇게 형통합니까?”라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보다는 14-15절에 주목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주기도문에 겹다리로 붙은 사족(蛇足)이 아니라 결론으로서 기도의 정의(Definition)을 바꾼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에 의하면”

기도란 우리의 계획과 뜻을 하늘나라에서 성취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위
“두괄식”이죠.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강력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맨 먼저 강조한 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 다 아시는데 꼭 기도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런 의문은 바로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전혀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감춰둔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신자가 필요한 것을 아니까 이제는 지경을 넓혀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닐까요?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닐까요?**

기도는 신앙인의 삶의 지경을 바꾸는 일이 아닐까요?

만일 기도하면서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그리고 기도에 대한 불평이
아직까지 우리의 삶에 남아 있다면 바로 바리새인과 이방인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던 이유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인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버지의 뜻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뱃속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은 부끄럼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만능열쇠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문제의 해결사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이제 기도를 끝낸다”는 마침 부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이름입니까?

어떤 모임에서 한 분에게 기도를 시켰더니 그분이 기도하다가 이 “예수의 이름으로”를
잊어버렸습니다. 기도가 끝날 시간이 되었는데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꾸만 빙빙
돌리기에 보니까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하루 종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할 때도 주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만 마칠 때도 주님
이름으로 끝을 내야 그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매주하는 축도이지만 가끔 그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 .”라는 말을 잊어버리면 어떨하나? 이렇게 많은 회중들 앞에서 갑자기 할 말을 잃어버린다는 것.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납니다. 당시 영어를 가르치시던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한국말을 잘 하시는 분인데, 채플에서 설교를 하고 축도를 할 시간에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왜 조용할까?” 잠시 후 그 분이 이렇게 축도를 시작했습니다. “요즈음은. . .” 갑자기 “지금은. . .”이라는 말이 생각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단지 말에 대한 실수와 두려움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기도는 시작도 끝도 될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세상도 압니다. 아니 악한 사단의 세력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삶에서 현존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화목”이 무엇인가요?

좋은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관계는 접촉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들어보셨던 설교제목이죠? “접근이냐? 접촉이냐?”

예수님 당시에도 가까이 나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까이에 있었지만 그들은 방관자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인격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접촉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한 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가운데서 예수이름의 권세가 드러난 것입니다.

오래 전 보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7번 방의 선물]

7살의 지능밖에는 안 되는 아버지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죠. 사랑하는 딸 예승이가 보고 싶어, 우여곡절 끝에 딸을 감옥의 7번방으로 데려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승이는 너무 평온하고 행복합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도록,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가운데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온갖 우상이 난무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 앞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구하는 것을 다 구했을 때에 일어날 결과에 대해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내 생애에 구한 어리석은 기도를 모두 다 들어주셨다면 나는 과연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말했습니다. 감히 추측컨대 부정으로 감옥에 가 있거나,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타락하여 폐인이 되어 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인간이 구하는 것들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요컨대 인간은 자기가 구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기도에 침묵과 심지어 거절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선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어 신자를 감옥에 보내거나 폐인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도록 간구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기도를 통해 이 땅위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끊임없는 도전이 옵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유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선택이 불완전 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